

제품: Basotect® G

용도: 서울 지하철의 방음



조용하고 안락하게

통근자에게 보다 조용하고 편안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 역에 BASF의 대표 발포체인 Basotect®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호선 25개 역의 천공 강벽 뒤에 소음을 흡수하고 불이 잘 붙지 않는 Basotect을 설치했습니다. 이 발포체 덕분에 작업자 역시 유지 관리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잘 휘어지는 Basotect는 탁월한 방음 특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세한 개방 셀 구조 덕분에 중간 및 고 주파수 범위에 있는 재료의 방음 능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Basotect은 천공된 강벽의 진동을 줄여줍니다. 이 시스템은 또한 낮은 주파수 범위에서 효과적인 방음을 제공합니다.

“지하철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될 경우 통근자들의 청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은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열차로부터의 소음이 증폭되는 긴 폐쇄형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소음 수준을 줄이는 것은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소음 수준이 높은 곳에서 Basotect를 사용함으로써 소음을 허용치까지 손쉽게 낮출 수 있습니다.” 라고 Basotect 글로벌 비즈니스 담당자 크리스토프 모엑 박사는 말합니다.



BASF의 대표 발포체인 Basotect은 서울 지하철의 통근자들에게 보다 조용하고 편안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9호선 25개 역의 천공 강벽 뒤에 소음을 흡수하고 불이 잘 붙지 않는 Basotect을 설치했습니다.

링크: www.plasticsportalasia.basf.com/basotect

출처: BASF 보도자료, P 117/10e, 2010년 1월 15일

링크: http://www.plasticsportal.net/wa/plasticsEU~en_GB/portal/show/common/plasticsportal_news/2010/10_117

제품: Basotect® G
용도: 서울 지하철의 방음

Basotect의 낮은 열 전도율로 인한 우수한 단열 능력은 에너지 효율 건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Basotect은 또한 화이버-프리 특성으로 인해 까다로운 탄소 배출 emission 요구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또한 불이 잘 붙지 않는 Basotect은 가공과 설치가 매우 쉽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Basotect은 비용 효과적이며 유지 관리가 쉬운 재료입니다.

서울 남동부의 김포공항에서 신논현에 이르는 지하철 9호선 25.5 km 구간은 2009년 7월에 개통되었습니다. 이후 수도의 동쪽까지 확장되었습니다. 9호선의 나머지 12개 지하철역에 단계별로 Basotect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www.plasticsportalasia.basf.com/basotect



서울 남동부의 김포공항에서 신논현에 이르는 지하철 9호선 25.5 km 구간은 2009년 7월에 개통되었습니다.

링크: www.plasticsportalasia.basf.com/basotect

출처: BASF 보도자료, P 117/10e, 2010년 1월 15일

링크: http://www.plasticsportal.net/wa/plasticsEU~en_GB/portal/show/common/plasticsportal_news/2010/10_117